“日 방사선 피해자 조사 잘못됐다”

日 노무라 교수, 원폭 희생자 추모제서 강연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6만 3000여 명의 한국인이 피폭됐다.

이 가운데 생존한 2만 5000명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나머지는 일본에서 사망했거나 남겨졌다. 원폭피해자 1세대의 상당수는 사망했고 2012년 현재 남은 이는 2600여 명이다. 피폭의 상처는 1세대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이 낳은 자녀인 ‘핵의 아이들’이라 불리는 2·3세대에게 병마와 가난은 대물림 돼 이어졌다. 이들은 다운증후군, 정신지체장애, 골다공증, 무혈성괴사증 등 정신·육체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의 애매한 태도와 유전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이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원폭2세 환우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40여 년간 방사선 피폭의 유전 문제를 연구해온 일본인 교수가 한국의 피폭2세 건강에 관한 연구 조사에 깊은 관심과 의지를 표명해 눈길을 끈다.

“방사선은 모든 동식물에게 돌연변이를 유발한다. 그리고 사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노무라 타이세이(野村大成) 오사카 대학 명예교수는 8월 6일 합천평화의집(원장 윤여준)이 경남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서 주최한 ‘제67주기 원폭 희생자 추모제’에서 초청강연을 했다.

이날 노무라 교수는 ‘방사선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40여 년 동안 쥐 실험을 통해 방사선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해 온 종합적 결론을 소개하며 “쥐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 그리고 사람의 경우도 방사선 피폭은 다음 세대에 돌연변이, 암, 기형, 유산과 사산 등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韓 피폭2세 건강연구 관심
“피폭, 다음세대에 악영향”
“피폭세대 건강조사 꼭 해야”

‘제 67기 원폭희생자 추모제’에서 합천평화씨알합창단이 합창공연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오른쪽 상단은 ‘방사선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한 노무라 타이세이(野村大成) 오사카 대학 명예교수.

노무라 교수는 그동안 연구·조사 해온 내용인 △남태평양 비키니섬에서 미군의 수소폭탄 실험에 의한 일본 원양어선이 피폭자들의 급격한 정자 수 감소 △숫쥐가 피폭 후 정상 암컷과 교배하자 태아의 반이상 사망하고 살아남은 태아도 출생 후 뇌수종, 구개파열, 손·발가락 기형 등을 설명했다.

노무라 교수는 “남 베트남 산악지대에서 전투했던 북베트남 병사가 고엽제 피폭 후 북으로 돌아가 아이를 낳은 경우 태아나 자녀의 기형 발생이 수 배 증가했다”며 “한국의 피폭2세의 경우도 베트남 전쟁 고엽제 피해 문제와 유사하다”고도 주장했다.

노무라 교수는 이 같이 명백한 조사 및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일본측이 부정적이었던 까닭도 설명했다.

“그동안 일본 방사선영향연구소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피해자 자녀의 피폭 유전적 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방사선 피폭의 영향과 전혀 상관없는 돌연변이만 조사하거나, 암에 걸리기 쉽지 않은 20세 이하의 젊은 피폭2세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등 조사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한계였다.”

이어서 그는 “암, 기형, 생활습관병 등 피폭2세의 건강조사와 흑시양친이 건재하다면 DNA검사로 부모의 피폭이 다음 세대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며 한국 피폭2세의 건강조사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추모제에는 (사)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 권영길 前 민주노동당 대표, 하창환 합천군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원폭피해자 2세 환우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제를 마련한 합천평화의집,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태양회는 천도재, 추모사, 추도사, 헌화 등 의식을 봉행했다.

지원 스님은 추모사에서 “머나먼 타국에서 조국을 그리며 살다 희생된 분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핵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한다”고 말했다. (055)934-0301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우리복지관 주력사업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도시(都市) 락(樂)’

텃밭 가꿔 지역 환원, ‘기쁨 두 배’

삭막한 도시 한가운데 옥상에 텃밭을 설치하고 스스로 감자, 상추, 고추, 배추 등을 심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기쁨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은 올봄 3월부터 옥상 텃밭에 심은 씨감자가 싹이 나자 양분과 물을 주고 열매가 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곁순을 쳐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자식처럼 애지중지 길렀다. 그렇게 소중히 가꾼 감자 10kg를 수확해 나눔상자에 담아 인근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렸다.

삭막한 도시 한가운데 옥상에 텃밭을 설치하고 스스로 감자, 상추, 고추, 배추 등을 심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기쁨이다.

노인은 농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서울 종로에서 토박이로 살아온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농사는 생소하고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2010년 5월 서울시 그린트러스트 사업단 지원을 받아 텃밭 가꾸기를 시작해왔다. 그러다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시 속에서 농작물을 직접 가꾸고 재배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농부양성 프로젝트 ‘도시(都市)락(樂)’을 진행하고 있다.

30여 명의 종로구 거주 어르신들은 ‘도시락’ 프로그램 중 하나인 농부학교에서 16주 동안 도시농업, 농사일지 작성법, 텃밭작물 재배법, 모종내기 씨앗 뿌리기 등 농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배우면서 11월 까지 직접 텃밭 가꾸기를 체험한다. 직접 작물을 심고 물과 거름을 주고 병충해 방제 작업까지 모두 스스로 한다.

그리고 수확물을 복지관 어르신과 식당에서 나누어 먹고 이웃들에게 나누며 지역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이웃의 정과 스스로 보람을 느낀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측은 “참여 어르신들은 살아있는 식물을 키우기 위해 애정을 쏟고 신체활동을 하고 함께 가꾸면서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꼈다”며 “규칙적 농작업이 주는 운동과 식물로 맑아진 공기는 자연스레 건강한 몸을 선물해 주며, 농업은 생명체를 돌보는 녹색 체험으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농부학교에서 이론 습득
텃밭상자 200개 설치해
지역 이웃에 수확물 기부

이렇듯 ‘도시락’ 프로그램을 통한 유휴지와 건물 옥상 등의 녹화(綠化)는 에너지비용 절감을, 농지 자연순환은 폐자원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준다. 또한 대기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해 생태도시를 만든다.

정관 스님은 “‘도시락’은 사회적으로는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의 노인 활동 공간으로 활용돼 이웃의 정을 회복하게 한다”며 “향후 복지관은 자연 속 교실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천혜의 놀이터이자 도시민들의 정서 치유의 장으로 기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02)742-9500

이나은 기자

“고령자 창업, 준비됐습니까?”

서울노인취업훈련센터, 어르신 대상 창업특강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노인취업훈련센터(센터장 청원)는 8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2012년 서울시노인취업훈련센터 창업특강 ‘고령자 창업! 준비됐습니까?’를 개최했다.

창업에 관심 있는 고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타창업연구소 김갑용 소장이 강사로 초빙돼 고령자에 적합한 창업분야 및 창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서울시노인취업훈련센터는 2004년 개소 후 연간 1500명 어르신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30여개의 직무훈련, 소양훈련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노인취업 전문 훈련기관이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퇴직 후 소자본·소규모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철저한 준비없이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노인취업훈련센터는 2009년부터 창업희망 고령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교육과정을 신설해, 현재까지 약 8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청원 스님은 “고령자 취업시장이 열악해지면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업에 관심을 갖는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자금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 부담이 크다”며 “본 창업특강이 고령자의 성공적인 노후설계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2)6911-9551 이나은 기자

걸그룹 타히티,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

신예 걸그룹 타히티(TAHITI)가 생명나눔나눔실천본부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지난 7월 ‘투나잇’으로 데뷔해 세련된 감성과 개성 있는 매력으로 가요계에 도전장을 낸 타히티는 이사장 일면 스님에게 홍보대사를 자청한 것.

예은, 지수, EJ, 정빈, 민재, 다솜 등 6명의 멤버로 구성된 타히티는 8월 8일 위촉식을 갖고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좋은 일로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복지단신

아동·여성 인권 보호 등 위한 MOU 체결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센터장 진원스님)는 2012년 8월 6일 센터 교육실에서 이주여성긴급지원 경북구미센터 1577-1366, 미혼모자 시설 경북 샤론의 집,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과 인권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가정폭력, 결혼이민여성, 미혼모 등 폭력피해여성의 위기상황 구조와 관련한 업무협조 및 지원체계와 연계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주민 참여하는 다함교실 실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학석)은 9월 28일까지 오후 5~7시 저녁시간을 활용한 ‘다함교실’을 실시한다. 학생부터 가족까지 1·2·3 세대가 함께하는 ‘다함교실’은 자비나눔가족봉사단, 벨리댄스, 요가·명상, 컴퓨터활용교육, 가족당구 및 탁구 등을 150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설한다. (031)919-8677

철산복지관,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성료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는 7월30일~8월 2일까지 ‘청소년 하계볼런티어스쿨’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가한 50명의 청소년들은 자원봉사기초소양교육, 자원봉사 포스트활동 등에 참여했다.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2. 8. 25(토) 오후 1시부터 ~ 8. 26(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1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44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2년 9월 6일 (목요일) 오후3시 (목탁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CD우송)
- 강의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래,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⑤ 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사용영반, 구병시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사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 02)733-1959 720-1836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